

# 글로벌 PC시장의 성장 전망

이은민\*

## 1. 서론

2020년 상반기에 COVID-19 위기에 따른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비대면 상황에 대응하며 수업 및 업무를 위한 개인의 노트북, 태블릿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sup>1)2)</sup> 2020년 하반기까지 COVID-19의 여파가 지속되며 구매력하락에 따라 반등되었던 컴퓨터 수요증가가 다시 줄어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컴퓨터 수요의 추세적 하락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 액세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나 그 성장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체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폰은 기존 PC에서 진행하던 많은 업무들을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원함에 따라, 게임PC 등 특수목적성 PC가 아닌 일반적인 PC수요 감소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micha76@kisdi.re.kr

1) 디지털데일리(2020. 4. 24.), “코로나19로 온라인개학..학습용 도구 ‘태블릿’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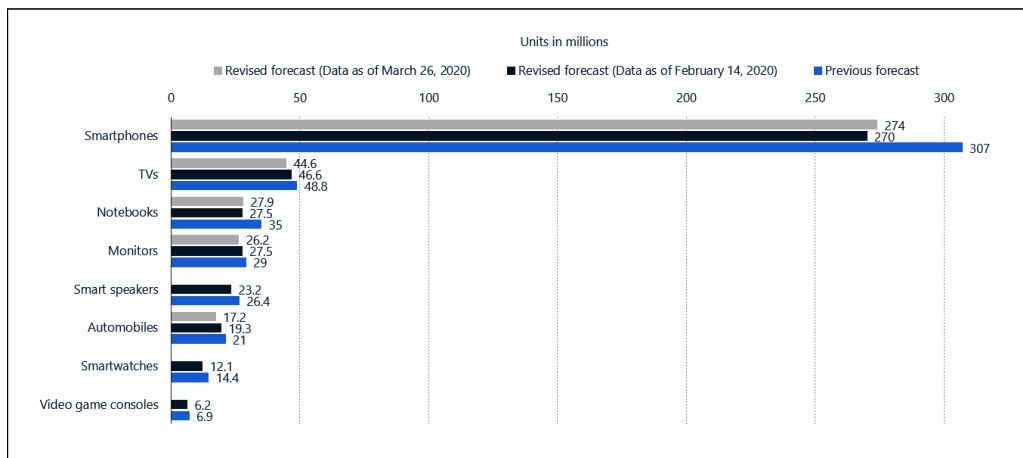
2) 조선비즈(2020. 7. 10), “글로벌 PC판매량, 재택근무-온라인수업 수요에 두 자리수 늘었다”

## 2. 본론

### 가. 2020년 PC시장의 성장: COVID19 이후 노트북과 태블릿 성장이 견인

COVID-19에 따른 비대면 업무환경과 수업환경은 가정에서 PC를 사용해야하는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반면 COVID-19의 발발로 글로벌 전자제품의 생산과 물류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였고, PC와 태블릿 등 컴퓨팅 디바이스의 예상 매출량도 하향 조정되었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노트북의 생산량이 기존 추정치 3천 5백만대에서 COVID19 이후 2천 790만대로 감소하였다.

[그림 1] 주요 제품들의 글로벌 출하 성장률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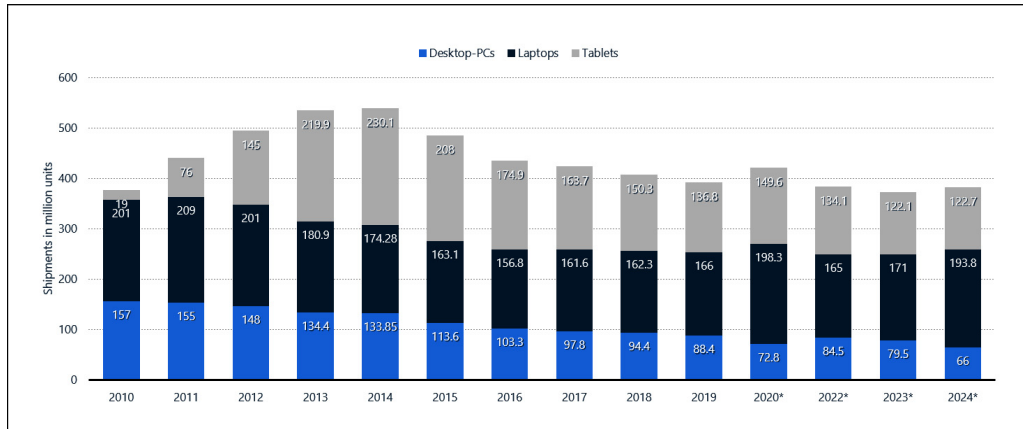
자료: Statista(2020), "Personal computers (PCs)"

2020년 전세계 컴퓨터 시장은 COVID-19 상황에 따른 노트북과 태블릿PC 매출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8%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이후 상승분을 모두 증장기로는 미미한 수준의 성장률 변화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의 전년대비 높은 성장률은 노트북(laptops)과 태블릿(Tablets)이 주도했으며, 데스크탑은 같은 기간 크게 하락하였다. 노트북은 2010년 전체 PC의 53%에서 2020년 47%를 점유하고, 태블릿은 같은 기

간 5%에서 36%로 그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데스크탑의 점유율은 42%에서 17%로 감소하였다.

[그림 2] PC 제품들의 글로벌 출하량 전망

(단위: 백만 대)



자료: Statista(2020), "Personal computers (P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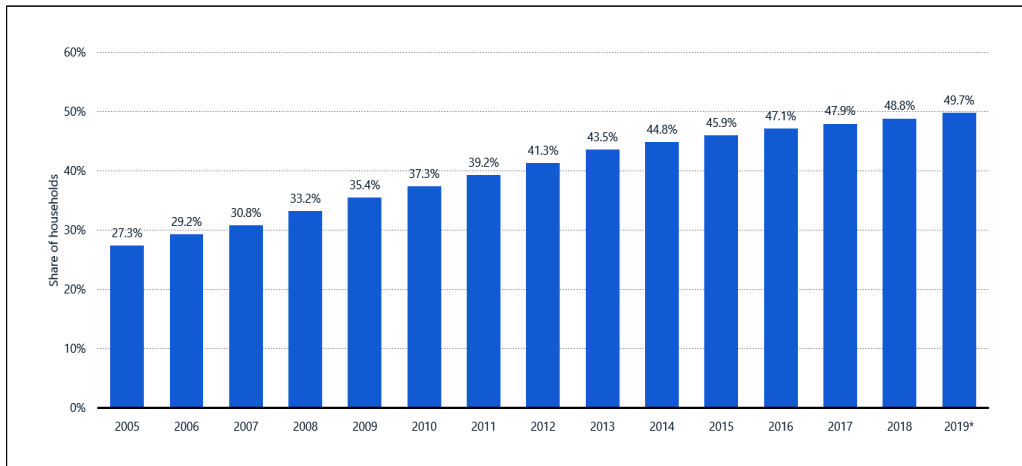
#### 나. 증장기 PC시장은 침체: PC의 높은 보급률과 스마트폰으로의 대체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비대면 학습의 경향성은 재택근무와 재택학습 행태를 증가시켜 노트북을 비롯한 PC시장의 단기적(2020년) 급증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단기 호재였으며, 증장기적으로 노트북을 포함한 컴퓨팅 디바이스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PC의 가정내 보급률은 2012년 40%를 넘은 이후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6년 80%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매우 더디게 증가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영상미디어 시청, 게임 뿐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PC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클라우드 환경이 도래하고 유무선 통합으로 사용자 환경이 끊임없이 연결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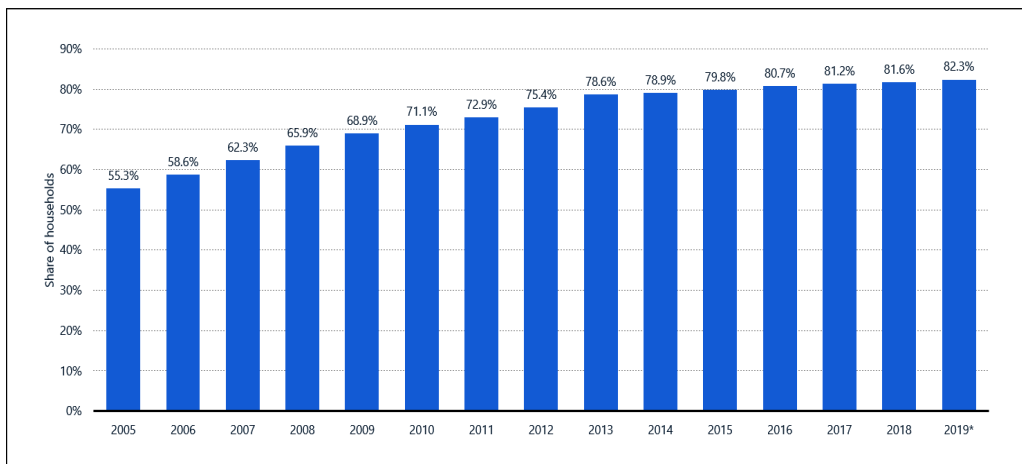
따라 가볍고 편하게 소지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의 업무나 학습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PC를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PC의 업무기능, 학습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림 3] 글로벌 PC의 가정내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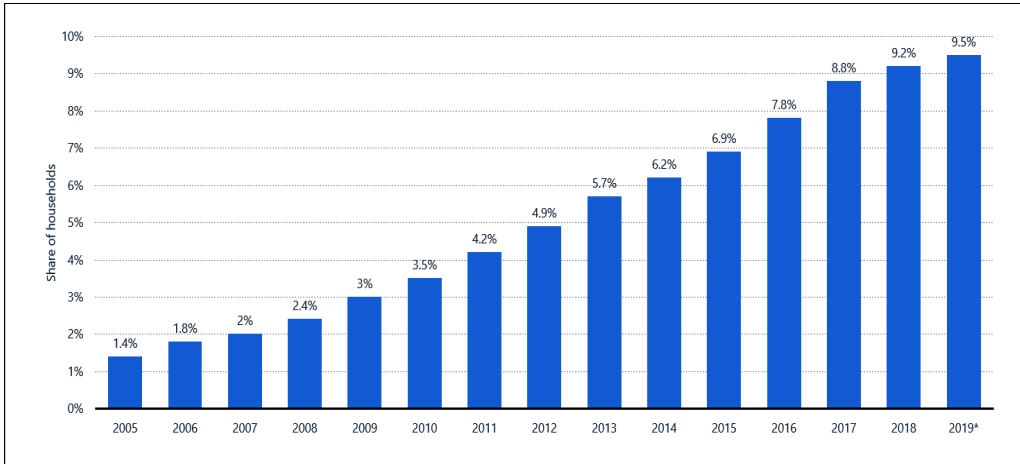
자료: Statista(2020), "Personal computers (PCs)"

[그림 4] 컴퓨터의 가정내 보급률((developed countries))



자료: Statista(2020), "Personal computers (PCs)"

[그림 5] 컴퓨터의 가정내 보급률(least developed countries)



자료: Statista(2020), "Personal computers (PCs)"

### 3. 결어

원래 PC 사용의 강점은 데스크톱 컴퓨터가 제공하는 고속고정 광대역 연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클라우드 환경, 5G 기술의 확산, 모바일 기반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으로 PC의 기능은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상당부분 대체되며 향후 성장의 정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게임용 PC 등 특수한 분야에서 프리미엄급 PC 수요는 일부 상승여력을 갖고 움직이겠지만, 일반적인 PC시장은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의 PC대체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디지털데일리(2020. 4. 24.), “코로나19로 온라인개학..학습용 도구 ‘태블릿’ 주목”

조선비즈(2020. 7. 10), “글로벌 PC판매량, 재택근무온라인수업 수요에 두 자리수 늘었다”

Statista(2020), “Personal computers (PCs)”